

전남 수영 양정두 - 제주 양궁 오진혁

전국체전 MVP 경쟁

국내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총집합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안을 최우수선수(MVP)가 누가 되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까지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른 선수로는 수영에서 3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런던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오진혁(현대제철·제주) 등이 있다.

전국체전 MVP가 제정된 제61회(1980년) 대회 이후 육상과 함께 가장 많은 11번의 주인공을 배출한 수영에서는 양정두(전남수영연맹)의 활약이 돋보인다. 양정두는 수영에서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당당히 최우수선수로 거론되고 있다.

12일 남자일반부 접영 50m 예선(23초91)과 결승(23초77)에서 차례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하며 우승한 양정두는 15일 자유형 50m 결승에서도 박민규(고양시청)와 나란히 22초52에 레이스를 마쳐 다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자유형 50m에서는 2002년 김민석(현 대표팀 코치)이 세운 22초55를 10년 만에 줄여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남자 양궁에 첫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안긴 오진혁은 남자일



양정두

반부 개인전과 거리별 경기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어 금메달리스트의 진가를 톡톡히 보여줬다.

오진혁은 30m·70m·90m에 이어 15일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이자 라이벌 임동현(청주시청)을 6-0(29-25 28-27 28-27)으로 제압해 4관왕에 올랐다.

오진혁이 16일 열리는 단체전에서도 팀의 우승에 보탬이 된다면 2004년 박성현(현 전북도청 감독) 이후 8년 만에 양궁에서 역대 다섯 번째 전국체전 MVP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양정두와 함께 수영 내에서는 여자부의 최혜라와 백일주(이상 전북체육회)가 각각 세



오진혁

개의 금메달을 따 우승 횟수에서는 양정두보다 앞서고 있다. 이들은 기록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못내 아쉬기도 하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핀수영에서도 아시아신기록과 4관왕이 탄생해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한국 핀수영의 간판 이관호(강릉시청)는 남자일반부 표면 50m에서 15초50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관호는 예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초91을 0.12초 단축한 데 이어 결승에서 다시 0.29초를 더 줄여 이날만 0.41초를 앞당기는 저력을 선보였다.

박건우기자

수영 양정두 체전 MVP 유력

한국新 셋... 양궁 오진혁과 경쟁

전남 선수단이 국내 최고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의 최우수선수(MVP)를 배출할 수 있을까.

전국체전이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 이번 대회 MVP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3개나 작성한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사진)와 양궁 4관왕 오진혁(현대제철·제주)이다.

양정두는 지난 15일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2초52로 터치패드를 찍어 한국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전 한국기록은 2002년 김민석(현 국가대표팀 코치)이 작성한 22초55였다. 양정두는 이를 10년 만에 0.03초 단축했다.

양정두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국신기록을 하루에 2번이나 갈아치우는 괴력을 선보였다. 남자일반부 접영 50m 예선과 결승에서 각각 23초91, 23초77로 한국기록을 2번이나 세운 것이다.

금메달은 2개(은메달 1개)뿐이지만 한 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3번이나 작성했다



는 대목이다.

양정두의 대항마 오진혁은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양궁 사상 첫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오진혁이다. 오진혁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30m·70m·90m·개인전을 휩쓸며 4관왕에 올랐다. 여기에 여자 기체체조에서 5관왕을 달성한 성지혜(대구체고)도 MVP 경쟁에 뛰어들었다. 성지혜는 여고부 마루·도마·이단평행봉·개인종합·단체종합을 석권하며 대회 최다관왕에 올랐다.

핀수영 남자일반부 표면 50m에서 아시아신기록(15초50)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이관호(강릉시청)와 여자일반부 표면 4관왕을 달성한 김보경(경북도청)도 후보로 꼽힌다.

는 점에서 오진혁 등 경쟁자들을 앞선다는 평이다. 특히 전국체전 MVP가 제정된 1980년 이후 수영과 육상에서 가장 많은 주인공을 배출했다는 점이 양정두의 수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고강인 기자 kiko@jnilbo.com

역도 김정수(보성군청) 2관왕

순천공고 럭비팀, 충북체육고와 오늘 결승

김정수(보성군청)가 역도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정수는 16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3회전국체전 역도 남자 일반 인상 85kg급에서 162kg, 용상과 인상 합계 357kg을 들어올려 2개의 금메달을 전남에 선사했다.

국가대표 출신 광양시청 불링 최복음은 남자일반 마스터즈에서 2천363점으로 금메달을 확정했다.

이어 여주시청 요트 김대영, 윤현호도 일반 국제470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날 15개의 은메달을 따낸 전남은 16일에도 5개의 은메달을 따내며 선전을 이어갔다.

순천매산고 정구팀 김보훈 외 6명이 출전한 단체전에서 강원 횡성고에 0-3으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태권도 여자일반부 +73kg급 김아람(전남협회)과 여고 +73kg급 황서영(전남체고)도 은메달을 따냈다.

합평군청 레슬링 남자일반부 김재환도 2위에 올랐다. 이밖에 담양고 사격 공기소총 단체와 육상, 요트 등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순천공고 럭비팀은 준결승에서 대구상원고를 38 대15로 물리치며 결승에 올라 17일 충북체육고 금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임정욱기자

광주연맹 김수길 맨발로 뛴 1만m 투혼의 '동' 보성군청 김경수 2관왕 순천공고 럭비 결승행



제93회 전국체전 폐막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와 전남선수단에 메달 소식이 잇따랐다. 특히 광주는 16일이 끝내데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금메달 11개가 쏟아졌고 예상목표 14위보다 한단계 높은 종합순위 13위를 예약했다.

반면, 전남은 성적이 좋지 않다. 이날 하루 금메달 4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따내는데 그쳤다. 종합순위는 목표했던 11위보다 한단계 낮은 12위가 예정됐다.

광주시청과 광주여대가 양궁 단체전 동반우승을 한 것을 비롯, 광주시청 김덕현이 멀리뛰기에서 16m40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청 이성은 높이뛰기에서 2m25로 개인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땀다.

동신여고는 정구 여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1980년 팀 창단이후 32년만의 첫 전국체전 우승 쾌거다.

1회전에서 전북 순창제일고를 3-1(4-0 3-0 0-4 3-0)로, 2회전에서 경남 마산제일여고를 3-1로(4-0 3-0 3-4 3-1)꺾고 4강에 올랐다. 준결승이 고비였다. 상대는 동향 라이벌 전남 순천여고. 4-0, 3-1로 2세트를 선점했지만 3-4세트를 2-4, 2-3으로 내줬다. 스코어는 2-2 동점. 하지만 마지막 복식에서 4-1로 승리, 3-2로 전남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16일 결승에서는 경북관광고를 3-0(4-1 3-0 4-2)으로 완벽하게 제압,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근대5종 국가대표 황우진(한체대 4년)은 남자일반부 5종개인전에서 5,960점으로 금빛 실력을 과시했고 이에 힘입어 광주는 근대5종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올림픽 체조 첫 금메달리스트 양학선(한체대 2년) 역시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레슬링에서는 이명진(광주체고 3년)과 이승동(광주체고 3년)이 자유형 63kg급과 85kg급에서 금메달을, 태권도에서는 남윤배(가스공사)가 87kg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광주육상연맹 김수길(26)은 감동의 동메달 투혼을 발휘했다.

남자일반부 1만m에 출전한 김수길은 30분48초62로 개인신기록(지난해 6위·32분02초75)을 세우며 3위에 입상했다. 보통 동메달이 아니었다. 경기도중 뒤편의 선수들과 경합하다 오른쪽 스카이크가 벗겨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김수길은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10바퀴를 맨발로 뛰는 감동 레이스를 펼쳤다.

김수길은 올해 부상으로 대회출전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정팀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고, 이번 체전에서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수길의 전국체전 메달은 건국대 시절인 지난 87회 대회 하프마라톤 은메달 이후 6년만이다.

전남은 보성군청 김경수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경수는 16일 대전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역도 남자일반부 85kg급 인상(162kg)과 합계(357kg)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용상에서는 은메달(195kg)을 보태면서 금2 은1개를 전남선수단에 안겼다.

광양시청 최복음은 불링 마스터즈에서 2,363점으로 금메달을, 여주시청 김대영-윤현호는 요트 일반부 국제 470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단체전에서는 순천공고 럭비가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바라보게 됐다.

/최진화 기자



16일 대구 전국체전 기계체조 종목별 결승이 끝난 뒤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아래쪽 왼쪽 4번째)은 목에 메달이 없다. 이번 대회에서 공동 금메달이 많이 나와 이번 기계체조 종목별 결승 시상식에서는 이미 수상한 선수의 메달을 다른 선수에게 수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金·金·金... 광주 목표 초과 기대

양학선·기보배 등 금 합작... 전남 男역도 다관왕·볼링 최복음 우승



올 런던을
림픽 스타 양
학선(한국체
대)과 기보
배(광주시
청), 황우진
(한국체대)가 제 93회 전국체육
대회'에서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
다.

광주는 체조·양궁·정구·근대5
종·육상·유도·레슬링·태권도 등
에서 우승소식을 알리며 '골든데
이'로 13위 목표 초과 달성을 기
대했다.

전남은 남자 역도 김경수(보성
군청)가 2관왕에 올랐고 순천공
고 럭비팀은 2년 연속 결승에 진
출했다.

양학선은 16일 대구에서 열린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
회 6일째 체조 남자일반부 도마에
서 16.262점으로 금빛 연기를 펼
쳤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
에 성공했다.

양학선과 함께 런던올림픽 남
자체조 단체전에 뛰었던 김희훈

(한국체대)도 도마에서 15.600점
을 따내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여자 양궁은 여대·일반부
가 함께 우승컵을 안았다.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인
기보배는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2
개를 목에 걸었다. 전날 개인전
에서 우승한 기보배는 단체전
에서도 허윤정·이특영·박미경과 호흡
을 맞춰 208점을 합작하며 금화살
을 쏘았다.

여일반부 단체전에 이어 여대부
단체전에서도 안세진·김소연·이
소현·김연지가 금메달을 거머쥐
었다. 여대부 70m 우승자 안세진
은 대회 2관왕이 됐다.

런던올림픽에서 낙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박수를 받았던 근대5종 황
우진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황우진은 남일부 5종 개인에서
596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근대5종 4종계주 동메달에 이
어 이번대회 2번째 메달이다.

동신여고 정구는 1980년 창단
이후 32년만에 전국체전에서 단

체전 금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이날 동신여고는 경북관광여고
와 결승전에서 3-0 완승을 거뒀
다. 남일부 동구청은 대구 달성군
청에 0-2으로 져 은메달을 가져왔
다.

대구에서 선전하고 있는 광주
시청 육상팀은 금메달을 또 추가
했다.

'한국 도약종목의 희망'인 김덕
현이 멀리뛰기에 이어 세단뛰기
까지 휩쓸며 2관왕이 됐다.

또 1만m에 출전한 김수길(광주
육상연맹)은 투혼의 동메달을 추
가했다.

김수길은 트랙 25바퀴를 돌아
아하는 16바퀴째 오른쪽 스파이
크가 벗겨져 맨발로 완주하며 기
적의 3위를 일궈냈다.

전남은 남자 역도에서 다관왕
이 나왔다.

김경수는 남일부 +85kg급에서
인상 162kg, 합계 357kg으로 2개
의 금 바벨을 들어올렸다. 용상에
서는 195kg으로 2위에 그쳐 아쉽
게 3관왕을 놓쳤다.



동신여고 정구팀이 1980년 창단 이후 32년만에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시체육회

순천공고 럭비는 전국체전 첫
우승에 도전한다.

순천공고는 경산생활체육공원
에서 열린 남고부 럭비 준결승에
서 대구상원고에 38-15로 이겼다.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순천공고는 대회 폐막일인 17일
오후 1시 충북체고와 대망의 결승
전을 치러 첫 정상에 노크한다.

볼링 국가대표인 최복음(광양
시청)은 남일부 마스터즈에서 금
빛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요트에서도 여수시청 김대영·
윤현호조가 남일부 국제 470급에
서 시상대 맨위에 올랐다.

이밖에 전남은 순천매산고 정
구가 남고부 단체전 2위에 올랐고
남일부 레슬링 김재환(함평군청)
은 자유형 84kg급에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태권도에서는 황
서영(전남체고)과 김아람(전남협
회)이 각각 여고·일부 +73kg급에
서 은빛 발차기를 했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

양학선 이번없이 대회 2연패 단체전도 우승 기보배 2관왕 김덕현 세단뛰기·멀리뛰기 금 전남볼링 최복음 V스트라이크



제93회 전국체육대회
The 93rd National Sports Festival

전국체육대회가 후반
기에 접어들면서 각 시·
도가 목표 달성을 위해
막판 메달사냥에 불이
붙었다.

대회 6일째인 16일은
런던올림픽 스타들의 활약이 돋보인 하루였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역사상 첫 올
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도마의 신' 양학선은 이
번 없이 세계 최강임을 과시하며 여유롭게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대표로 출전한 양학선은 이날 대구 계명
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기계체조 남자일반부
종목별 결승 도마 종목에서 1, 2차 시기 평균 16
.262점을 획득,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양학선은 지난 14일 단체 및 개인종합 경기와
마찬가지로 1차 시기에서 '여2' (도마 쪽으로 힘
차게 달려와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으로
몸을 띄워 두 바퀴 반을 비틀어 내리는 기술), 2
차 시기에서는 '쓰카하라 트리플' (도마를 옆으
로 짚고 세 바퀴를 비틀어 도는 기술)을 선보였
다.

양학선의 광주체고 1년 선배인 김희훈 (한국
체대)도 15.600점으로 귀중한 은메달을 따냈
다.

'양궁 여신' 기보배 (광주시청)도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박미경, 허윤정, 이특영과 함께 208
점을 합작, 충북청원군청 (194점)을 가볍게 제
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는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또 이날 열린 대학부 경기에서 광주여대는 안
세진을 비롯한 김연지, 김소연, 이소현 등 미녀
궁사들이 결승에서 한국체육대학교 (196점)을
상대로 204점을 합작하며 3년만에 단체전 우승



양학선, 종목별 결승도 '여2'

기계체조 종목별 결승 도마에서 '여2'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여대는 국내 여자대학 '빅3'로 통하
는 한국체육대, 경희대 등의 강력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 더욱 값진 메달이
었다. 광주여대 에이스인 안세진은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금2, 은2, 동1를 기록
했다.

광주 육상 김덕현 (광주시청)은 16일 대구스
타디움에서 열린 세단뛰기에서 16.40m를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국내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로써 김덕현은 멀리뛰기 (7.67m)에 이어 2
관왕 올랐다. 남자일반 높이뛰기에 출전한 팀동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도마의 신' 양학선 (광주 대표·한
국체대)이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체육관에서 열린 기

/연합뉴스

료 이성 선수도 2.25m를 뛰어 개인신기록을 달
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역도 남자
일반부 85kg급에 출전한 김경수 (보성군청)가
인상 162점kg과 합계 357kg으로 금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용상에서는 아쉽게 195kg을 기록
하며 은메달에 그쳤다.

또 볼링에서는 최복음 (공양시청)이 금메달
을 추가했고 울진 후포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국
제470급 요트 결승에 출전한 김대영, 윤현호 (여
수시청)도 귀중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수영서 3개의 한국新' 양정두 MVP 꿈꾸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회 막바지를 향
해가면서 대회 최우수선수 (MVP)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른
선수로는 오진혁 (현대제철·제주)과 수영에
서 3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양정두 (전남
수영연맹·사진)가 유력하다.

올림픽 양궁 스타 오진혁과 함께 MVP의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양정두 (전남수영연
맹)는 이번 대회에서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수영의 신성으로 거듭났다. 지
난 12일 남자일반부 접영 50m 예선 (23초91)
과 결승 (23초77)에서 차례로 한국신기록으
로 우승한 양정두는 15일 자유형 50m 결승에
서는 박민규 (고양시청)와 나란히 22초52에
레이스를 마쳐 다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



김덕현이 육상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과 2
관왕을 차지한 것이 유일하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을 목에 걸었다. 수영
에서는 지난해 박태
환 등 총 11번 MVP를
배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2
006년 경북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